

김치 '고추가루' 항암 유산균 가득

농진청, 유전체정보 바탕으로 상관관계 밝혀… 김치 유산균 식품원료 등록 추진

김치에 넣는 고춧가루가 항암과 면역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유산균을 증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 유산균은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김치 내 다양한 유산균의 유전체정보를 기반으로 정량 분석기술을 개발해 김치의 주요 유산균 중 하나인 '비아셀라 사이버리아(Weissella cibaria)'의 생성과 고춧가루의 상관관계를 구명했다고 밝혔다.

비아셀라 사이버리아는 사람 몸속에서 항암·항염·항균 기능을 하는 물질인 인터루킨(interleukin)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비아셀라 사이버리아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이고 식중독균에 대한 면역반응을 높이는 것을 통찰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김치와 들어 있지 않은 김치를 4°C 냉장고에 12

주 동안 저온 발효한 결과,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김치에서 7주 정도까지 비아셀라 사이버리아의 개체수가 부피(1ml) 당 약 2,000만 개가 확인됐으며, 이후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춧가루가 들어 있지 않은 김치에서는 비아셀라 사이버리아를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유산균에 대한 특성 및 인전성 검토자료 등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을 허가받았으며, 현재 식품원료 등록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이 완료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최정숙 기능성식품과장은 "비아셀라 사이버리아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유산균 음료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김치가 세계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재용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6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한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500여명 참석 안전의식 향상 기여 유공자 훈장과 포상

한국전기안전공사가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6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안전 생활회를 통해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한국 실현을 향한 국민적 실천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을 비롯해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강명국 내일신문 사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조준희 YTN 대표이사, 이윤호 소년한국 일보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대표와 산업체 인사 500명이 참석했다.

올해 시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신상문 전무가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운영을 통해 산업체에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대

회 최고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세이전설(주) 박근우 대표이사와 삼보모터스(주) 온도석 이사가 산업포장의 영예를 함께 안았다.

또한, 대룡통표첨에는 윤군 제65 보병사단 이영한 군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이경남 본부장·한국중부발전 황순홍 본부장이 개인부문 수상자로, 삼성서울병원과 OCI(주) 군산공장이 단체부문 수상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는 등 모두 44개의 정부 훈·포장과 표창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안전은 모든 것의 시작이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우리 국민이 일구어온 경제신화를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전기안전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2016년도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입상작들도 함께 전시됐다.

/연재용 기자

도내 식품기업들 '서울국제식품산업전' 큰 성과

해외 수출 및 국내외 유통바이어와 17억원 상당 계약 성사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결과 국내외 유통 바이어와 17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켰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FOOD WEEK KOREA)'은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약 1,000개사가 참여하는 하반기 국내 최대 식품박람회로 올해 11회를 맞이했으며, 진흥원에서는 도내 식품기업 35개사를 전북공통세일즈관으로 구성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 생물산업진흥원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족을 겨냥한 '나만의 싱싱세끼(점복도련)'를 주요테마로 참가기업 제품을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접거리, 야식거리, 요깃거리' 혼밥존으로 구성하고, '혼술거리, 주전부리, 해장거리' 혼술존으로 구성해 차별화된 부스 컨셉으로 많은 관람객과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소비 지출의 중심인 '40대'를 겨냥한 '마흔왕이'(걱정말아요 그대) 컨셉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약한 참가기업제품을 공동브랜드화 해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진흥원은 바이어 및 일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참가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이어 및 40대를 대상으로 참가업체의 제품으로 구성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연재용 기자

전북은행, 고3 수험생 힐링 Day 참가자 모집

전북은행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16 고3 수험생 힐링 Day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

사는 수능시험 준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수험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주시 흥자동에 위치한 한해랑 아트홀에서 100분

간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수험표를 지참한 고3 수험생 100명으로 관람료는 전액무료이며, 전 북은행 혼 흥 폐 이지(www.jibank.co.kr)에서 9월부터 20일 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연재용 기자

도내 건설공사 전년대비 수주액 12.2% 상승

국가 공사 발주건수 증가로

액은 10월말 현재 8,439억원으로 전년대비(7,539억원) 12.2%(9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조사 발표한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총발주금액은 1조2065억원으로 전년도 동월(1조4,245억원)대비 15.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수주금액(1조272억원)도 전년대비(1조2,361억원) 16.9%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체 수주누계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지원(신규사업발굴, 분할발주 등)에 힘입어 도내 건설업체 수주실적이 증가돼 도내 건설업체의 단단한 숨통이 조급은 트인 듯하다"고 말했다.

/연재용 기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창조적인 건설산업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단 및 제5대 대표회원"

회장 정대영	윤리위원	곽 병 도	운영위원	강 신 길	운영위원	양 선 기	대표회원	강 동 범	대표회원	김 영 옥	대표회원	안 대 순	대표회원	정 영 주
직전회장 윤재호	윤리위원	권 남 진	운영위원	기 호 성	운영위원	오 영 훈	대표회원	강 성 희	대표회원	김 영 우	대표회원	안 석 문	대표회원	조 희 곤
부회장 윤방섭	윤리위원	김 송 회	운영위원	김 성 민	운영위원	유 상 래	대표회원	강 지 원	대표회원	김 영 주	대표회원	안 장 환	대표회원	지 명 철
부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김 승 수	운영위원	박 형 식	운영위원	김 영 랑	운영위원	운 선 학	대표회원	강 지 형	대표회원	유 명 숙	대표회원	진 동 선
부회장 전 옥	윤리위원	송 재 친	운영위원	김 종 원	운영위원	이 용 규	대표회원	고 두 영	대표회원	김 재 호	대표회원	윤 진 오	대표회원	최 경 호
감사 이윤범	윤리위원	송 화 중	운영위원	나 춘 균	운영위원	이 재 선	대표회원	김 광 현	대표회원	김 주 영	대표회원	이 훈	대표회원	최 용 호
원로회원 임영환	윤리위원	신 현 용	운영위원	이 공 희	운영위원	라 규 환	운영위원	김 대 수	대표회원	김 창 선	대표회원	이 기 열	대표회원	최 종 환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이 승 원	운영위원	이 동 근	운영위원	문 길 천	운영위원	김 만 열	대표회원	김 창 옥	대표회원	이 용 만	대표회원	최 환 재
원로회원 이동규	윤리위원	이 정 기	운영위원	박 종 완	운영위원	조 금 혜	대표회원	김 문 숙	대표회원	김 협 빙	대표회원	이 우 재	대표회원	한 용 진
원로회원 김성권	윤리위원	조 병 두	운영위원	배 문 식	운영위원	채 이 식	대표회원	김 미 정	대표회원	김 협 상	대표회원	이 장 규	대표회원	한 지 훈
	윤리위원	최 산 성	운영위원	배 진 식	운영위원	최 도 성	대표회원	김 민 석	대표회원	김 협 주	대표회원	이 장 춘	대표회원	한 재 준
	윤리위원	최 현 호	운영위원	신 상 문	운영위원	한 상 우	대표회원	김 선 화	대표회원	박 정 순	대표회원	이 형 우	대표회원	한 태 봉
							대표회원	김 성 광	대표회원	박 찬 민	대표회원	임 재 훈	대표회원	한 호 영
							대표회원	김 양 득	대표회원	박 혜 경	대표회원	장 기 현	대표회원	정 준 모

(기준:성명기다순)